

# 1995年을 向한 建築技術

Architectural Technique for the 1995

張起仁 / 三成建築士事務所

by Chang, Kee-In

1995年이 되면 우리나라가 光復된지 반세기가 되는 해이며, 그간에 독립자주적으로 이끌어 왔고 발전하면서 선진국 대열에의 도약을 거듭하여 왔다. 이제 비로소 民主化의 조류속에 갈망하고 기대하던 일들이 이루어 질 것을 희망하면서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날의 큰 영광을 뿌리내려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 앞을 내다보는 建築人으로서 어제와 다른 참신하고 우수한 技術로써 대처하는 노력과 활약이 따라야 하고 촌각이라도 안이하고 담보하는 우매를 범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私利를 위하기보다는 이 국가사회에 공헌해야 하는 것을 항시 염원하면서 앞서가는 기술인의 자세가 필요하다. 建築技術은 學識이론을 뒷받침으로 하여 축적된 建築技法과 창조개발된 선진기술이 없이는 선진에의 희망은 이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의 기술을 총집합하여 정리하고, 보다 참신한 기법의 탐구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건축기술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먼저 建築士의 기술개발에서 부터 協會의 기술연구가 요망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특별한 지원이 요청되기도 한다. 이제까지 개인이 이룩한 기술경험의 방대한 재산이 無聊하게 방치되고 있지 아니한가. 구체적으로 광복초기에서 주택건설이 시작되어 20년, 40년을 지난 오늘까지 건물면적 규모나, 가구수의 변모등의 조류도 정립하지 않고 장래를 도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많은 研究와 실적을 빛낸 住宅公社라 하겠지만 대중일반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현상유지로 그치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다. 일반이 할 수 없는 앞날의 국민생활의 터전을 마련하도록 분발하고, 영리에 상응하는 것은 일반건설에 분담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建築生産技法이나 安全管理手法도 도시개발과 도시환경에 걸맞게 촉진되어야 하겠으며 監理制度의

오류도 척결하고 건축주의 뜻과 건설업자의 의지가 설계도서를 무시하는 풍조에서 또한 기능공의 안이한 시공을 사전에 일깨워도 無可奈何인것을 감리자가 어찌할 수 있겠는가. 시공자 자신이 고도의 기술화, 정밀한 시공감리방법이 선행되어야 하다는 것에 귀착되는 것이다. 시공기술자가 없는 주택건설현장에 감리업자가 필요하지도 않는 것은 당연하지 아니한가. 常住監理에 앞서 건축주가 임명하는 공사시공감독이 철실하게 요망되고 또 그의 체제하에 시공이 이루어져야 되겠기에 감리에 앞서 용이주도한 감독이 있어야 한다.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는 우리 건축사는  
한국의 大樂團의 일원이라는  
공지와 자애로서  
모든 것을 이 사회에 환원하는  
문화의 창조자,  
기술의 선구자가  
되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

張起仁

16년 평북출생으로 경성공업고등학교 건축과를 졸업하고, 건축사협회 2대 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현재는 삼성건축사사무소를 자영하고 있다.

建築生産에 투자되는 국가재정에 비하여 민간투자액은 막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행정은 고작 건설부의 一個局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 담당도 건축기술인이 아닌 門外人이고 보면 이나라의 건축기술은 애당초부터 民間処事로 始終하였다 하여도 과언은 아닌 것이다. 그러기에 주택건설의 발전은 고사하고 차질이 잦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建築廳이라도 두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전담하고 아울러 막중한 건축자재의 생산과 그 개발연구의 지도촉진이 갈망되는 것이다. 건축자재 실험실도 갖추어지지 아니한채 계획설계가 선진화 되기에는 아직도 요원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先輩後學들의 많은 개발연구와 그 실적공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더욱더 건축계를 위하여 힘써주실 것을 바라며, 技術情報交換도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건축에 관한 자료·연구실적 등의 정보관리에 투자육성을 바라마지 아니한다. 건축생산기술의 근본은 시공기술에 있다. 그 기술은 단순용이하고 어느 때라도 우수한 시공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어야 하며, 또한 저렴한 공사비로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도 창조되는 시공기술로 선진으로의 기술연마가 필요하다. 건축생산은 設計에서 비롯되며 신형자동차의 모델과도 같아서 안락한 生活, 충분한 構造機能을 가지면서 건축주의 기호에 맞는 美的文化가 창출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건축사는 건축주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자기작품을 완성해야 하므로 인간적으로 建築主와 建築士 그리고 施工者 여러분의 합주아래에 걸작 교향곡이 작곡되고 절찬속에 대단원이 내려질 것이다.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는 우리 건축사는 한국의 大樂團의 일원이라는 공지와 자애로서 모든 것을 이 사회에 환원하는 문화의 창조자, 기술의 선구자가 되어 지기를 바랄 따름이다.